

(나) 시 비

① 시비방법

기비는 m^2 당 잘 부숙된 낙엽 0.05kg, 깻묵 0.05~0.1kg, 녹비 15~20kg, 들깨 (볶은 것) 0.05kg와 5406 비료 25kg이 적당하다. 필요할 때에는 과린산칼슘 0.05~0.01kg 및 붕산마그네슘 비료 0.05~0.1kg을 섞어 시비한다. 해당 지역에서 얻기 쉬운 유기비료를 선택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2016 길림성 및 흑룡강성 인삼 재배농가 실태조사에서 삼림을 개간한 삼포 예정지 관리 시에 유기질 비료는 주지 않고 화학비료 (N-P-K =12-18-15) 만 무당 약 60kg 사용하고, 생육 중에는 비료를 주지 않고 농약 살포시 영양제(4종 복비)를 섞어 주는데 생육기에는 보통 10일 간격으로 준다. 유기물이 토양 물리성 개량 효과는 벗짚, 보릿짚이나 옥수수대에 비해 청초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초를 시용하기 위해서는 총체 생산량이 많은 벼과 작물을 녹비로 재배하는 것이 권장된다.

표 46 유기물 종류별 토양 입단 구조율

시용량(kg/간)	청초	벗짚	보릿짚	옥수수대
15	31.0	23.3	27.1	20.9
20	40.4	28.0	30.8	26.6
25	43.4	37.4	27.3	27.5
평균	38.3	29.6	28.4	25.0

* 자료 : 인삼재배의 안내(원동림)

추비 적기는 출아 후, 엽전개 전인 5월 하순~6월 상순이다. 깻묵 또는 들깨 $0.05kg/m^2$ 를 과린산칼슘 $0.05kg/m^2$ 및 기타 미량원소를 잘 섞어서 이랑 사이에 뿌리가 상하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시비한다. 또는 과린산칼슘 $0.05kg/m^2$ 및 기타 미량원소를 잘 섞어서 주거나, 비료의 50~100배의 부식토를 섞어서 고랑에 뿌리고 물을 준 다음 적당한 시간에 복토하고 그 위는 또 낙엽이나 청초를 덮어주면 토양수분 보존, 비효 발휘하는데 효과적이다.

엽면시비는 인삼개화 전, 개화 후 및 채종 전에 과린산칼슘 2%액, 과망간산칼륨 0.2%액과 염화칼륨 1% 액을 각각 3차 분시하면 채종량을 증대할 수 있다.

(7) 이 식

(가) 이식 시기 및 재식방법

이식기는 봄과 가을로 나눈다. 봄이식(春栽)은 보통 4월 중, 하순이고 가을이식(추재)은 10월 중, 하순에 한다. 이식 시기에 따른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표 47).

표 47. 춘재와 추재의 특징 비교

춘 재	추 재
현지에서 묘를 뽑아 이식하는 것이 좋다.	묘의 장거리 운송하여 移식 가능
이식 한계기가 짧다	이식 한계기가 길다
소면적 옮겨심기 적합하다	대면적 옮겨심기 적합하다
이식 후 반드시 해가림 해야 한다	이식 후 반드시 방한해야 한다
凍害가 없고 근 부패가 적다	동해가 심하고 근부패 병 발생
상면 토양이 성기다	상면 토양이 딱딱하다
한해(旱害)가 심하다	한해가 적다
출아가 늦고 생육이 불량	출아율이 비교적 낮다